

## 중국 대학평생교육원 학위과정참여자의 진로 의사결정 영향 요인들에 대한 구조관계<sup>1)</sup>

王津(曲阜師範大學, 강사)<sup>2)</sup>

권인탁(전북대학교, 교수)<sup>3)</sup>

---

### 요 약

---

본 연구는 중국 대학평생교육원 학위과정참여자를 대상으로 진로 의사결정에 대한 학업적 자기 효능감, 참여 동기 및 교육서비스 만족도의 구조적 관계를 탐색하는데 있다. 연구문제는 첫째, 대학평생교육원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참여 동기, 교육서비스 만족도 및 진로 의사결정의 구조 관계, 둘째, 대학평생교육원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 의사결정의 관계에서 참여 동기 및 교육서비스 만족도의 매개효과, 셋째, 대학평생교육원생의 배경 특성에 따른 매개효과 차이에 대한 분석이다. 연구방법은 대학평생교육원 성인학습자 516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가정검토, 탐색적 요인분석, 구조방정식 추정 및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된 결과를 보면, 첫째, 중국 대학평생교육원생의 진로 의사결정에 대한 학업적 자기효능감, 참여 동기, 교육서비스 만족도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평생교육원생의 참여 동기 및 교육서비스 만족도는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 의사결정의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하고, 그 효과는 참여 동기가 교육서비스 만족도보다 크게 나타났다. 셋째, 대학평생교육원생의 배경 특성에 따른 매개효과 차이는 성별, 생활정도, 학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 대학평생교육원 학위과정참여자의 진로 의사결정 및 취업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학업적 자기효능감, 참여 동기, 교육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과 그것에 대한 배경특성에 따른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

주제어: 진로 의사결정, 학업적 자기효능감, 참여 동기, 교육서비스 만족도

---

## I. 문제의 제기

최근에 사회적 변화 및 직무 요구에 따라 중국 성인학습자들은 자신의 생애직업진로를

---

1) 이 논문은 2021년도 王津의 박사학위 논문을 발췌하여 재구성한 것임.

2) 제1저자: 王津(5489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wj617136182@163.com)

3) 공동저자: 권인탁(5489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itkwon@jbnu.ac.kr)

향상시키기 위해 직무 역량을 향상하는 수단으로 고등학력취득을 위하여 대학평생교육원 학위과정을 많이 선호하고 있다(張艷超, 2019; 許競, 于明瀟, 郭巍, 2019). 中國教育部統計年鑒에 의하면, 전국 대학평생교육원 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은 2017년 247만 명에서, 2019년의 302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중국 대학평생교육원 학위과정을 참여하는 성인학습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그러나 중국의 고등인력의 취업현황을 보면 일자리에 비해 4년제 대학학력 취득자들의 수가 여전히 부족하여, 기업들은 고등학력취득자들의 직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郭欣, 2017).

이런 치열한 고용 환경 변화는 고등학교, 전문대 졸업생들의 사회생활적응을 어렵게 하였고, 그에 따른 진로에 대한 불안감은 진로결정을 미루거나 회피하기 위해 대학진학을 하게 된다(黃海霞, 2014; 왕효경, 2018). 대부분의 중국대학생들은 진로지도교육의 부족, 가정 및 학부모의 과도한 기대감, 진로탐색과정의 부족 등의 원인으로 진로의사결정력이 부족하며, 진로를 결정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張平, 劉暢, 倪士光, 2014; 揚光萍, 謝寶國, 2017; 溫正胞, 2017).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중국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 졸업생들의 진로의사결정에 대한 교육과 훈련의 필요를 절감하게 한다.

진로의사결정은 개인이 전 생애에서 진로에 관한 다양한 선택과 결정과정에 초점을 두고, 직업세계에 들어가기 위한 의도된 표현임을 의미하며(Crites, 1961), 하나의 직업선택만 포함된 것뿐만 아니라 선택을 완성하는 과정에서의 행동에 대한 승낙도 포함된다(왕효경, 2018). 이는 다양한 개인적, 심리적, 사회 환경적 요인들이 영향을 받는다(이선아, 2019; 謝寶國, 夏勉, 2013; 段姍姍, 徐春婷, 2014; 方翰青, 譚明, 2014).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심리적 측면에서 진로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Betz와 Hackett, 1986; 杜睿, 2006; 김영성, 2019; 范晶晶, 2010).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업상황에서 학습자가 자기효능감으로 학습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으로 볼 수 있다(Bandura, 1986). 김아영, 박인영(2001)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습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학업이나 과제수행에서 어려운 상황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고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이나 기대로 정의하였다. 성인학습자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높을수록 불안을 느끼는 정도가 낮고, 효과적인 학습전략을 사용하여 뛰어난 자기조절능력을 보인다(권인탁, 2014).

교육 분야에서 또 다른 중요한 심리적 개념으로 간주되는 요인으로 참여 동기(Vallerand 외, 1992)는 진로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가 최근 들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이현미, 정제영, 2017; 함진희, 2018; 김민자, 2019). 참여 동기는 성인학습자의 학습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인들이 자발적인 선택과 주관적인 의사 결정을 통해 학습에 참여

하기 때문에 성인학습에서 매우 중요하다. 참여 동기는 학습자가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나 이유가 되며(김리원, 2012; 권인탁, 2013), 자발적으로 학습 활동에 참여하는 학습자의 내부 상태는 교육과정의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이영아, 2012).

사회환경적 요인으로서 많은 연구에서 강사의 강의수준 및 연구능력, 기관의 교육이념 등을 의미하는 교육서비스가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향상하는 데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陳勇, 2012). 교육서비스는 학습자들에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관 내에 교·강사 및 직원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며, 학생 입장에서는 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안주영, 권인탁, 임영희, 2014). 교육서비스는 진로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공급자인 평생교육기관이 교·강사 및 직원을 통해 수요자인 성인학습자에게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해 제공하는 일련의 서비스이며(김진아, 2008; 류인평, 강동원, 이재곤, 2019; 양동휘, 정해옥, 2020), 학습자 입장에서는 평생교육기관에서 제공 받는 모든 혜택이라고 말할 수 있다(김대명, 2013). 이에 따라 진로의사결정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 질에 대한 만족이 중요시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그런데 이러한 진로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들은 통합적이기보다는 단편적인 접근에 의한 분석들이 많다. 더욱이 중국 대학평생교육원 학위과정참여자들의 학력 취득에 따른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관련된 연구들이 거의 없다. 따라서 중국 대학평생교육원에서 학력을 취득한 성인학습자들의 진로결정 또는 취업에 관련된 변인들에 대한 탐색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중국 대학평생교육원에서 학위과정학습자의 진로의사결정 영향 요인들에 대한 구조 관계를 분석하여 그들의 진로의사결정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즉, 중국 대학평생교육원생의 진로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학업적 자기효능감, 평생교육 참여 동기, 교육서비스 등의 구조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연구문제는 첫째, 대학평생교육원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참여 동기, 교육서비스 만족도 및 진로의사결정의 구조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대학평생교육원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의사결정의 관계에서 참여 동기 및 교육서비스 만족도의 매개효과가 어떠한가? 셋째, 대학평생교육원생의 배경특성(성별, 학력, 생활정도, 학년)에 따른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중국 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의 실태

중국의 대학평생교육원은 일반 단과 대학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설치되는 기관이고 전문적인 교육으로 통신 교육, 학력 교육, 직업역량 개발교육 및 사회문화 교육을 포함하며, 인재 양성, 사회 복지 및 문화 전승의 세 가지 기본 기능을 가지고 있다(杜友堅, 2014). 또한 이 기관의 운영 유형은 주로 학력교육(學歷教育)과 비학력교육(非學歷教育)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학력교육은 성인고시(成人高考), 방송통신대학(廣播電視大學), 원격대학(網絡大學), 독학검정고시(自學考試) 등이 있고, 비학력교육은 직업교육, 자격증 취득교육, 인문교양 양성 등의 교육으로 운영된다(王霖, 2005). 중국 대학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학력교육의 성인고시(成人高考) 과정은 1986년부터 시작하였고 성인학습자들이 고등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하면 입학이 가능하다. 그리고 중국 대학평생교육원에서 학력인정교육 참여자의 유형은 전문학교에서 4년제 대학교로 편입할 수 있는 전승본(專升本)<sup>1)</sup>, 고등학교에서 4년제 대학교로 입학하는 고기본(高起本)<sup>2)</sup>, 고등학교에서 전문학교로 입학하는 고기전(高起專)<sup>3)</sup>의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이에 따라 학제는 일반적으로 전승본(專升本)이 2~3년이고, 고기본(高起本)은 5년, 고기전(高起專)은 2년 6개월로 개편·운영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안정적인 기업의 대부분은 4년제 대학학력을 채용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 졸업생들은 취업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趙春明, 李宏兵, 2014; 熊婕, 2014). 따라서 이런 사회적 변화와 직업 요구에 적응하기 위해 중국 대학 학위과정 평생교육참여자는 기술적인 인재,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 경영진의 관리요원들을 포함하여 점차 확대되고 있다(黃海霞, 2014).

1980년 9월 당중앙국무원(黨中央國務院)에서 공포한 <고등교육기관에서 통신교육과 야간대학의 운영에 관한 통지(關於大力發展高等學校函授教育和夜大學的意見的通知)>에 따라 중국의 4년제 일반대학은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통신교육과 야간대학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許競, 于明瀟, 郭巍, 2019). 이에 따라 통신교육과 야간대학을 통해 4년제 대학학력이나 전문대학학력을 취득한 성인학습자 수는 1981년의 7,000명에 1988년의 20만 명으로 급증하게 되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 대학평생교육원 졸업생은 2000년에 55만 명, 2003

1) 전승본(專升本): 전문대 졸업자가 4년제 대학교에 편입하여 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것(일반 편입).

2) 고기본(高起本): 고등학교 졸업자가 4년제 대학교에 입학하여 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것

3) 고기전(高起專): 고등학교 졸업자가 전문학교에 입학하여 전문대 학위를 취득하는 것.

년에 100만 명을 돌파하여 2014년에 200만 명으로 급증하였다(中國教育部統計年鑒, 2000-2016). 이는 2016년에 대학평생교육원의 졸업생 수가 방송통신대학, 노동자·농민고등학교, 교육학원, 관리간부학원, 독립통신학원을 포함하는 독립성인고등교육기관의 총 졸업생 수보다 10배 이상 증가를 나타내는 결과이다.

<표 1> 2000년-2016년 중국고등학력교육기관의 졸업생 수(명)

연도	독립성인고등교육기관 (獨立成人高等教育機構)					대학 평생교육 기관 普通高校 成人繼續教育
	방송통신 대학 廣播電視大學	노동자·농민 고등학교 職工·農民 高等學校	교육 학원 教育學院	관리간부 학원 管理干部學院	독립 통신학원 獨立函授學院	
2000	98,955	98,947	62,491	64,081	4,403	551,600
2001	109,200	90,566	55,152	57,100	4,265	614,243
2003	152,691	101,508	109,602	50,878	8,696	1,169,983
2005	91,962	74,069	77,739	31,177	640	1,392,302
2007	75,429	70,164	74,773	32,515	644	1,510,875
2009	63,000	76,903	5,090	26,066	1,528	1,725,495
2010	60,564	77,846	41,078	18,992	1,421	1,772,972
2014	60,688	62,622	29,774	17,495	191	2,041,559
2016	63,145	60,109	30,616	13,060	6	2,277,714

## 2. 진로의사결정의 의미와 관련 변인

### 가. 진로의사결정의 의미

진로의사결정(career decision making)이란 특별한 직업에 입문하기 위한 개인의 의사표현(Crites, 1961), 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에 접근하고 해결하는데 활용하는 전략(Janis 외, 1977), 개인이 정보를 조직하고 여러 가지 대안들을 검토하여, 진로선택을 위해 행동과정에 전념하는 심리적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Harren, 1979). 개인이 진로에 대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전공과 직업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용하게 되는 심리적 기제(이재창, 유계식, 1996)로서 진로의사결정은 어떤 상황에서의 과학적, 합리적인 태도를 통해 미래에 예측과 자신의 행동에 대한 선택을 함으로써 문제의 대안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과정이다(임태욱, 2000; 장광원, 2012).

진로의사결정에 관한 개념은 진로결정, 진로미결정, 결단성부족 등의 개념과 같은 맥락에

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특히 많은 집단 내에서 진로에 대한 결정을 명확히 내리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이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진로결정 혹은 진로미결정이라는 개념에 대한 연구를 많이 진행하였다(Wanberg와 Muchonshk, 1992; 왕효경, 2018). 杜睿(2006)는 진로결정을 결정자가 자신 미래에 적절한 교육 또는 직업 분야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과정으로 정의하는 것을 기초로 Gati 외(1996)의 CDDQ 도구를 수정하여 중국대학생의 특성에 따라 외부 환경의 현황 및 발전 동향을 참고로 하여, 중국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미결정에 관한 연구에서 측정 요인을 진로정보탐색, 진로자기탐색, 진로계획탐색, 진로목표확신, 진로신념인 5가지 하위변인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보완하여 왕효경(2018)은 중국대학생의 성인애착, 자기분화, 사회적지지, 진로의사결정의 특징 및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진로정보탐색, 진로자기탐색, 진로계획탐색과 진로목표확신 4개의 하위요인으로 연구하였다.

#### 나. 진로의사결정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관계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의사결정의 관계를 살펴보면, 박현희, 김순이(2016)는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이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며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해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혁신적인 교육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진준혁(2010)의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높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박금선(2001)은 고등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고, 전경애(2005)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와 일치한 결과를 얻었다. 또한 박용균(2007)은 같은 결과로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길(2008), 강민정(2015)은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에 유의한 직접적인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의 관계에서 김종숙(2010)은 자기효능감은 기혼여성의 진로결정에 직접적으로 중요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杜睿(2006)의 중국 대학생 진로미결정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진로미결정의 수준이 더욱 낮아지며, 자신의 직업목표가 더 명확하고, 진로정보탐색, 자기탐색과 진로계획 등의 방면에서도 더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편으로 나타났다. 范晶晶(2010)도 대학원생의 진로결정에 관한 연구에서 자기효능감과 진로미결정 간에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 진로의사결정과 참여 동기의 관계

참여 동기와 진로의사결정의 연구를 보면, 김민자(2019)는 커피교육에 참여하는 교육생을

대상으로 참여 동기와 창업의지, 교육만족도, 학습성과, 진로결정 간의 관계에서 학습자의 참여 동기가 간접적으로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권도 시범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박지현(2020)은 참여 동기와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참여 동기는 진로결정수준의 하위요인인 진로미결정과 일부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함진희(2018)는 참여 동기의 구성요인인 내적동기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이현미, 정제영(2017)은 학교활동 참여는 청소년기 진로발달과제의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직업교육에 참여한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참여 동기와 진로적응성의 관계를 연구한 김소영(2020)은 진로적응성을 관심, 통제, 호기심, 자신감으로 보고, 참여 동기의 하위요인인 목표지향요인과 학습지향요인이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때 참여 동기가 높을수록 진로적응성이 증가함을 보였다.

#### 라. 진로의사결정과 교육서비스 만족도의 관계

교육서비스 만족도와 진로의사결정과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체육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최영준(2016)은 교육서비스가 진로결정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이에 따라 교육서비스가 진로를 탐색하거나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류인평, 강동원, 이재곤(2019)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교육서비스에 전반적으로 유의하다고 볼 수 있고, 이는 한아름(2012)의 교육서비스 질의 요인이 진로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과 일치한다. 김민희, 이결재(2018)는 관광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수지도, 교육시설, 행정서비스, 그리고 교육과정을 포함하는 교육서비스 품질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고, 교육서비스품질 요인 중 교육과정만이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리고 양동휘, 정해옥(2020)의 연구에서도 교육서비스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외식경영을 전공으로 하는 대학생들에게 수업에 대한 적절한 수준과 내용, 그리고 방법이 진로를 준비하는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 3. 학업적 효능감, 참여 동기 및 교육서비스 만족도의 관계

#### 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참여 동기의 관계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자기효능감에서 발전된 개념으로 학업상황에서 적용되었다. 선행연구에서도 학업적 자기효능감보다 자기효능감이 더 넓은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에 자기

효능감과 참여 동기의 관계를 밝혀낸 연구들은 대체로 자기효능감이 학습 동기와 높은 상관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Thomas, Love, Roan-Belle, Brown과 Garriott, 2009; Walker, Greene과 Mansell, 2006).

김은정, 서동희, 기은정(2020)의 스마트 러닝을 활용한 간호교육에서 과제가치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습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습참여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You와 Song(2013)의 연구에서도 참여 동기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과제가치에 중요한 영향요인이라고 하였다.

#### 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교육서비스 만족도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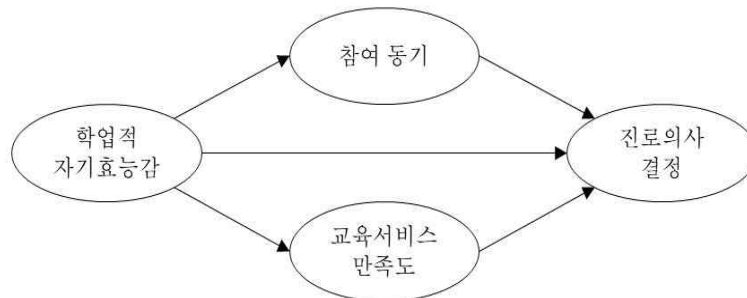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교육서비스 만족도와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가연희(2008)는 기업 교육 참가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자기효능감, 성취 동기, 참여 동기, 자기조절학습 수행력이 교육훈련의 만족도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기업교육 참가자의 자기효능감은 교육훈련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높게 나타내고 밝혔다. 이와 같이 박혜정(2010)의 연구에서 평생교육기관 성인학습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교육서비스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안주영, 권인탁, 임영희(2014)는 대학평생교육기관의 교육서비스 질이란 평생교육기관에서 제공되는 일련의 서비스에 대하여 평생학습자에 의해 지각된 질을 의미하며, 대학평생교육원 성인학습자의 참여 동기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업행복감의 관계에서 중요한 매개효과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이 연구는 중국 대학평생교육원에서 학위과정참여자의 진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구조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 2. 연구대상



[그림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중국 S대학, Q대학의 부설기관 평생교육원의 학위과정참여자 총 7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 이루어졌다. 회수된 설문지 중 조사대상이 5%이하로 학력별 대졸, 결혼 여부별 기혼, 직업별 유직, 전공계열별 예술계열, 기타의 해당자를 빼고 응답이 부실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것을 제외한 후에 516부의 설문지를 연구의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배경 특성의 빈도분석 결과는 <표 2>과 같다.

<표 2> 연구 대상자의 개인적 배경특성별 빈도

항목	구분	빈도(N=516)	비율(%)
성별	남	252	48.8
	여	264	51.2
학력	고졸이하	51	9.9
	전문대졸	465	90.1
생활정도	상	78	15.1
	중	367	71.1
	하	71	13.8
학년	1학년	126	24.4
	2학년	183	35.5
	3학년	207	40.1
전공계열	문화역사계열	88	17.1
	이공계열	103	20.0
	경제관리계열	133	25.8
	법학계열	79	15.3
	교육계열	113	21.9
전체		516	

<표 2>과 같이,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로는 남 48.8%(252명), 여 51.2%(264명), 학력별로는 고졸이하 9.9%(51명), 전문대졸 90.1%(465명)로 나타났고, 생활정도는 상 15.1%(78명), 중 71.1%(367명), 하 13.8%(71명), 학년은 1학년 24.4%(126명), 2학년 35.5%(183명), 3학년 41.0%(207명)로 나타났으며, 전공계열은 문화역사계열 17.1%(88명), 이공계열 20.0%(103명), 경제관리계열 25.8%(133명), 법학계열 15.3%(79명), 교육계열 21.9%(113명)로 나타났다.

### 3. 측정도구

이 연구에서 측정도구는 진로 의사결정, 학업적 자기효능감, 참여 동기, 교육서비스 만족도의 내용을 조사한다. 설문지는 문항별 5점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각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에 5점을, '전혀 아니다'에 1점을 부여하였다. 측정도구의 하위요인 및 신뢰도는 <표 3>와 같다.

<표 3> 설문지의 하위요인 및 신뢰도

연구변인	하위요인	신뢰도
진로 의사결정	진로정보탐색	.789
	진로자기탐색	.881
	진로계획탐색	.891
	진로목표확신	.784
	전체	.932
학업적 자기효능감	과제관관도 선호	.738
	자기조절효능감	.897
	자신감	.873
	전체	.944
참여 동기	목표지향형	.869
	활동지향형	.812
	학습지향형	.884
	전체	.907
교육서비스 만족도	교육안내	.813
	교육환경	.838
	교육비용	.910
	전체	.899

각 변인의 설문지 출처와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적 자기효능감 검사는 김아영, 박인영(2001)과 홍애순(2013)의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활용하였다. 학업적 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과제곤란도 선호, 자기조절효능감, 자신감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22문항이다.

둘째, 참여 동기 검사는 최운실(1986)이 번안한 것을 사용된 안주영, 권인탁, 임영희(2014)의 연구에서 활용된 것을 참고하여 보완하였다. 참여 동기에 대한 측정은 목표지향, 활동지향, 학습지향 이 세 가지 하위요인을 포함하여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교육서비스 만족도의 척도는 김대명(2013)의 교육서비스에 관한 설문내용을 수정하여 조사하였고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선택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육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측정문항은 교육안내 3문항, 교육환경 4문항, 교육비용 2문항으로 총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넷째, 진로의사결정 검사는 Gait, Krausz와 Osipow(1996)가 개발한 진로미결정척도(Career Decision Difficulties Questionnaire: CDDQ)를 기초로 杜睿(2006)가 번안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구체적 항목으로는 진로결정수준 하위요인 중 진로정보탐색, 진로자기탐색, 진로계획탐색, 진로목표확신에 관한 문항을 선정하여 총 1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4. 자료처리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의 자료 분석은 SPSS 25.0을 사용하였으며, 확인적 요인분석과 구조관계 분석은 Amos 24.0을 활용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의 분석내용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가정검토를 위해 변수들에 대해 기술통계량, 상관관계, 왜도, 첨도 및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구하였다.

둘째, 측정변수를 바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검사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으며, 변수의 인과구조를 분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추정하였다.

셋째,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의사결정의 관계에서 참여 동기 및 교육서비스 만족도의 매개효과 분석을 위하여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팬텀변수를 활용하여 개별 경로에 따른 매개효과 크기를 파악하였고, 변수간의 경로계수를 산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변인간의 구조 관계

#### 가. 기술통계 및 변수간의 상관 계수

연구 자료의 정규성 검토를 위해 평균,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를 구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은 <표 4>와 같다. 왜도의 절대값이 2를 넘지 않고, 첨도의 절대값이 7보다 크지 않으며 문항별 절대값이 1이하로 왜도 및 첨도에서 허용 범위 안에 포함되어 정규성에 위배되지 않았다.

<표 4> 측정변인별 기술통계량(N=516)

연구 변인	측정변인	M	SD	왜도	첨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과제곤란도 선호	3.90	.425	-.991	1.866
	자기조절효능감	3.94	.461	-.836	.795
	자신감	3.95	.475	-.856	.681
	전체	3.94	.428	-.920	.812
참여 동기	목표지향형	4.27	.517	-.513	1.091
	활동지향형	4.07	.498	-.741	1.072
	학습지향형	4.09	.553	-.492	.589
	전체	4.13	.448	-.925	1.780
교육서비스 만족도	교육안내	3.84	.519	-.606	.067
	교육환경	3.84	.508	-.580	.028
	교육비용	3.77	.559	-.214	-.371
	전체	3.82	.452	-.447	.078
진로의사 결정	진로정보탐색	4.00	.474	-.774	.979
	진로자기탐색	4.02	.534	-.593	1.857
	진로계획탐색	4.02	.535	-.679	1.387
	진로목표확신	4.02	.520	-.864	.974
	전체	4.02	.450	-1.056	1.886

그리고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수들 간의 관계성과 다변량 분석 가정의 확인을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추정하고,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상관행렬을 살펴본

결과, 변수들 간 관계는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p < .01$ ). 변수 간의 과도한 상관관계로 인한 경로계수의 과대추정 및 과소추정을 방지하기 위해 다중공선성 여부를 검토하였고, 그 결과 모든 변수들의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최대 3.259로 나타났다. 보통 VIF가 10 미만일 경우 양호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 연구 모형의 변수들은 모두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측정변인의 상관관계 및 다중공선성의 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5> 측정변인 간의 상관관계(N=516)

	학업적 자기효능감			참여 동기			교육서비스 만족도			진로의사결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학업적 자기 효능감	1												
2	.777**	1											
3	.717**	.814**	1										
참여 동기	.395**	.428**	.413**	1									
5	.456**	.511**	.500**	.619**	1								
6	.420**	.478**	.465**	.519**	.676**	1							
교육 서비스 만족도	.300**	.363**	.325**	.239**	.327**	.259**	1						
8	.295**	.355**	.354**	.216**	.328**	.266**	.845**	1					
9	.292**	.313**	.274**	0.082	.184**	.124**	.623**	.632**	1				
진로 의사 결정	.395**	.444**	.437**	.402**	.460**	.431**	.417**	.429**	.231**	1			
11	.386**	.458**	.421**	.374**	.479**	.391**	.349**	.349**	.219**	.676**	1		
12	.397**	.445**	.421**	.354**	.460**	.369**	.307**	.341**	.172**	.704**	.665**	1	
13	.445**	.540**	.482**	.416**	.523**	.475**	.393**	.372**	.235**	.746**	.701**	.642**	1
M	3.90	3.94	3.95	4.27	4.07	4.09	3.84	3.84	3.77	4.00	4.02	4.02	4.02
SD	.425	.461	.475	.517	.498	.553	.519	.508	.559	.474	.534	.535	.520
VIF	2.733	3.181	3.259	1.758	2.551	2.030	1.930	2.217	1.774	3.080	2.458	2.384	3.040

주: a. 1. 과제관란도선호, 2. 자기조절효능감, 3. 자신감, 4. 목표지향, 5. 활동지향, 6. 학습지향, 7. 교육안내, 8. 교육 환경, 9. 교육비용, 10. 진로정보탐색, 11. 진로자기탐색, 12. 진로계획탐색, 13. 진로목표확신.

b. \*\* $p < .01$

### 나. 측정모형 분석

이 연구에서는 외생잠재변수와 내생잠재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요인부하량(표준화 계수), 오차분산, 개념 신뢰도를 추정하여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각 잠재변수의 신뢰도를 평가하고 측정모형의 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6>와 같다.

<표 6>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chi^2$	RMSEA	GFI	AGFI	NFI	CFI	IFI	TLI	RMR
108.180	.040	.970	.953	.974	.988	.988	.984	.008

\*\*\*p<.001

본 연구에서 측정모형의 최종 적합도는  $\chi^2=108.180(p<.001, df=59)$ , GFI=.970, CFI=.988, NFI=.974, TLI=.984, RMR=.008, RMSEA=.040 등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GFI, CFI, NFI 등은 0.8~0.9 이상이면 양호한 것으로 보고, RMR은 0.05이하이면 양호한 것으로 보고 있다 (Steiger & Lind, 1980). 또한 RMSEA는 .05<RMSEA<.09이면 모델오류의 정도가 적절한 정도임을 나타낸다(Browne & Cudeck, 1992).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볼 때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수용 가능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각 요인 부하량과 오차분산, 개념 신뢰도 등은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경로	표준화 계수( $\beta$ )	표준오차 (S.E.)	t-value (C.R.)	p	AVE	구인 신뢰도
학업적 → 과제곤란도	.827	-	-	.000***	.772	.910
자기 → 자기조절학습	.935	.047	26.274	.000***		
효능감 → 자신감	.871	.049	24.232	.000***		
참여 → 목표지향	.699	-	-	.000***	.616	.827
동기 → 활동지향	.878	.072	16.764	.000***		
→ 학습지향	.767	.076	15.515	.000***		
교육 → 교육안내	.766	-	-	.000***	.602	.819
서비스 → 교육환경	.855	.066	16.538	.000***		
만족도 → 교육비용	.699	.066	14.907	.000***		
진로 → 진로정보탐색	.861	-	-	.000***	.690	.899
→ 진로자기탐색	.809	.048	22.276	.000***		
의사 → 진로계획탐색	.790	.048	21.498	.000***		
결정 → 진로목표확신	.860	.045	22.486	.000***		

\*\*\*p<.001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잠재변수들의 측정모형의 개념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는 일반적인 수용 기준인 .70 이상보다 높게 나타났다(Hair et al., 1998). 이러한 결과는 연구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 참여 동기, 교육서비스 만족도, 진로의사결정을 구성하는 측정변수들이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내적 일관성을 갖고 잠재변수를 구성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향후 분석 결과의 해석에 있어서 변수의 타당도에 문제가 없음을 알려 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연구모형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과제곤란도 선호, 자기조절

효능감, 자신감 등 세 개 측정변수로, 참여 동기의 경우 목표지향, 활동지향, 학습지향 등 세 개 측정변수로, 교육서비스 만족도의 경우 교육안내, 교육환경, 교육비용 등 세 개 측정변수로, 진로 의사결정의 경우 진로정보탐색, 진로자기탐색, 진로계획탐색, 진로목표확신 등 네 개 측정변수로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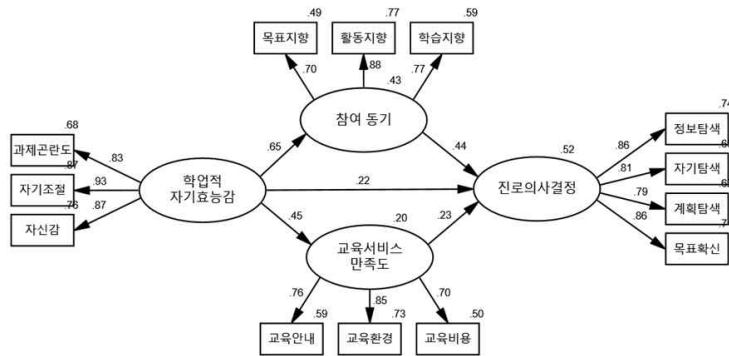
#### 다.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이 연구의 모형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 의사결정의 관계에서 참여 동기와 교육서비스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분석의 결과, 매개모형의 경로계수는 <표 8>과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8> 연구모형의 경로계수(N=516)

경로	경로계수		S.E.	C.R.	p	
	비표준화	표준화				
학업적 자기효능감 →	진로 의사결정	.259	.224	.065	3.979	.000***
	참여 동기	.673	.652	.056	12.011	.000***
	교육서비스 만족도	.504	.447	.058	8.670	.000***
참여 동기 →	진로 의사결정	.488	.436	.066	7.400	.000***
교육서비스 만족도 →	진로 의사결정	.235	.230	.047	5.036	.000***

\*\*\*p<.001



[그림 2]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경로계수를 보면,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진로 의사결정(B=.259, p<0.01), 참여 동기(B=.673, p<0.01), 교육서비스 만족도(B=.504, p<0.01)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참여 동기가 진로 의사결정( $B=.488, p<0.01$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교육서비스 만족도가 진로 의사결정( $B=.235, p<0.01$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준화된 진로 의사결정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진로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력은 참여 동기( $\beta=.436$ )가 가장 크고, 교육서비스 만족도( $\beta=.230$ ), 학업적 자기효능감( $\beta=.224$ )의 순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 대학평생교육원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진로 의사결정, 참여 동기 및 교육서비스 만족도에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참여 동기와 교육서비스 만족도가 각각 진로 의사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 2.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진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참여 동기와 교육서비스 만족도가 각각 매개변수로 작용할 것을 가정하였다. 매개변수의 개별적인 매개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 샘플 2,000의 Bootstrap을 수행한 후 95%의 Bias-corrected 신뢰구간을 제시하였다. 중국 대학평생교육원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 의사결정의 관계에서 참여 동기의 매개효과 크기가  $.321(p<.01)$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 의사결정의 관계에서 교육서비스 만족도의 매개효과 크기가  $.115(p<.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표 9>과 같다.

<표 9> 매개효과 검증

경로	효과크기	SE	Bias-corrected 95%CI		
			Lower	Upper	p
학업적 자기효능감→ 참여 동기→진로 의사결정	.321	.060	.223	.450	.001**
학업적 자기효능감→교육서비스 만족 도→진로 의사결정	.115	.031	.063	.187	.001**

\*\* $p<.01$

이러한 결과는 중국 대학평생교육원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 의사결정의 관계에서 참여 동기와 교육서비스 만족도가 매개하는 것을 의미하며, 매개효과 크기를 볼 때 참여 동기가 교육서비스 만족도보다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 의사결정의 관계를 더 크게 매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3. 배경특성에 따른 매개효과 차이

#### 가. 성별에 따른 매개효과

중국 대학평생교육원생의 성별에 따라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 의사결정의 관계에서 남성 집단과 여성 집단의 참여 동기와 교육서비스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10>와 같다.

<표 10> 성별에 따른 매개효과

경로	성별	효과크기	SE	Bias-corrected 95%CI		
				Lower	Upper	p
학업적 자기효능감 → 참여 동기 → 진로 의사결정	남	.259	.073	.143	.439	.000***
학업적 자기효능감 → 교육서비스 만족도 → 진로 의사결정	여	.295	.093	.148	.524	.001**
학업적 자기효능감 → 참여 동기 → 진로 의사결정	남	.054	.037	.005	.158	.022*
학업적 자기효능감 → 교육서비스 만족도 → 진로 의사결정	여	.171	.050	.090	.287	.000***

\*p<.05, \*\*p<.01, \*\*\*p<.001

<표 10>에서 보면,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 의사결정의 관계에서 참여 동기의 매개효과는 남자 집단에서 .259(p<.01)로 나타났고, 여자 집단에서도 .295(p<.01)로 나타났다. 매개효과 크기는 남자 집단보다 여자 집단이 효과 크기가 더 크게 나타났다.

#### 나. 학력에 따른 매개효과

중국 대학평생교육원생의 학력별에 따라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 의사결정의 관계에서 고졸이하 집단과 전문대졸 집단의 참여 동기와 교육서비스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학력별에 따른 매개효과

경로	학력	효과크기	SE	Bias-corrected 95%CI		
				Lower	Upper	p
학업적 자기효능감 → 참여 동기 → 진로 의사결정	고졸이하	.466	.320	-.064	1.216	.082
학업적 자기효능감 → 교육서비스 만족도 → 진로 의사결정	전문대졸	.272	.057	.173	.391	.001**
학업적 자기효능감 → 참여 동기 → 진로 의사결정	고졸이하	.157	.152	-.046	.543	.122
학업적 자기효능감 → 교육서비스 만족도 → 진로 의사결정	전문대졸	.090	.026	.046	.152	.000***

\*\*p<.01, \*\*\*p<.001

<표 11>에서 보면,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 의사결정의 관계에서 전문대졸 집단의 참여 동기의 매개효과는 .272(p<.01)로 나타났으며, 교육서비스 만족도의 매개효과는 .090(p<.001)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 의사결정의 관계에서 참여 동기와 교육서비스 만족도의 매개효과는 고졸이하 집단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 다. 생활정도에 따른 매개효과

중국 대학평생교육원생의 생활정도별에 따라 상 집단, 중 집단, 하 집단으로 구분하여,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 의사결정의 관계에서 참여 동기와 교육서비스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12>과 같다.

<표 12> 생활정도별에 따른 매개효과

경로	생활정도	효과크기	SE	Bias-corrected 95%CI		
				Lower	Upper	p
학업적 자기효능감 → 참여 동기 → 진로 의사결정	상	.280	.176	-.035	.647	.074
	중	.382	.084	.240	.578	.001**
	하	.245	.123	.081	.556	.005**
학업적 자기효능감 → 교육서비스 만족도 → 진로 의사결정	상	.079	.068	-.008	.307	.078
	중	.084	.038	.026	.180	.002**
	하	.285	.102	.122	.551	.001**

\*\*p<.01

<표 12>에서 보면,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 의사결정의 관계에서 참여 동기의 매개효과는 중 집단 .382(p<.01), 하 집단 .245(p<.01)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상 집단 .280(p>.05)으로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라. 학년에 따른 매개효과

중국 대학평생교육원생의 학년별에 따라 1학년 집단, 2학년 집단, 3학년 집단으로 구분하여,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 의사결정의 관계에서 참여 동기와 교육서비스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13>와 같다.

<표 13> 학년별에 따른 매개효과

경로	학년	효과크기	SE	Bias-corrected 95%CI		
				Lower	Upper	p
학업적 자기효능감 → 참여 동기 → 진로 의사결정	1	.072	.130	-.179	.332	.572
	2	.398	.115	.221	.685	.001**
	3	.372	.103	.199	.611	.001**
학업적 자기효능감 →	1	.064	.058	-.014	.242	.104

교육서비스 만족도 →	2	.096	.050	.023	.236	.004**
진로의사결정	3	.128	.061	.024	.266	.017*

\*p<.05, \*\*p<.01, \*\*\*p<.001

<표 13>에서 보면,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의사결정의 관계에서 참여 동기의 매개효과는 2학년 집단 .398(p<.01), 3학년 집단 .372(p<.01)로 나타났고 1학년 집단 .072(p>.05)으로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국 대학평생교육원 학위과정참여자의 진로의사결정에 있어서 학업적 자기효능감, 참여 동기 및 교육서비스 만족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분석이다.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대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대학평생교육원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참여 동기, 교육서비스 만족도는 진로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국 대학평생교육원생의 진로의사결정에 대한 영향력은 참여 동기가 가장 크고, 학업적 자기효능감, 교육서비스 만족도 순으로 나타났다.

먼저, 중국 대학평생교육원생의 참여 동기는 진로의사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에서 이루어진 연구 중에 백민경(2019)의 대학 태권도 시범단원의 참여 동기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 김민자(2019)의 커피교육 참여 동기가 다양한 변수를 통해 매개적으로 진로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 김영성(2019)의 특수체육교육과 대학생들의 장애인체육 봉사활동에서 지각하는 참여 동기는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 김소영(2020)의 학습참여 동기의 목표지향과 학습지향은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 박지현(2020)의 참여 동기는 진로결정수준의 하위요인인 진로미결정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이 결과는 중국 대학평생교육원생의 참여 동기가 자신의 진로결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참여 동기를 고취시켜줘야 진로결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중국 대학평생교육원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진로의사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에서 이루어진 연구 중 장경문(2005)의 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대학생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성희(2010)의 일반계 고등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스트레스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오은주(2016)의 대학 신입생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

향: 진로장벽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김혜민(2020)의 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진로 결정수준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와 일치한다. 이 결과는 중국 대학평생교육원생의 학업에 대한 자신감이 높으면 자신이 앞으로 가고자 하는 진로에 대한 결정도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진로의사결정 향상을 위해서는 진로탐색프로그램 개발이나 운영 시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함께 향상시켜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중국 대학평생교육원생의 교육서비스 만족도는 진로의사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연숙(2006)의 교육서비스 품질이 학생만족과 진로탐색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수희(2018)의 조리교육 서비스품질이 진로선택 및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이한나, 안선주, 최정일(2019)의 교육서비스품질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와 일치한다. 이 결과는 중국 대학평생교육원생의 교육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진로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진로결정수준도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국 대학평생교육기관은 성인학습자의 진로결정에 도움이 되고 싶으면 기관의 교육내용 및 기관 시설 등을 최신했고, 강사 및 교직원들은 대학 성인학습자들에게 취업에 관한 정보와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함을 시사한다.

둘째, 중국 대학평생교육원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의사결정의 관계에서 참여 동기, 교육서비스 만족도가 유의한 매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더불어 매개효과의 크기는 참여 동기가 교육서비스 만족도보다 더 크게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 대학평생교육원생의 참여 동기 및 교육서비스 만족도는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의사결정의 관계를 매개하며, 교육서비스보다 참여 동기가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중국 대학평생교육원생의 진로의사결정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대학의 교육서비스 개선뿐만 아니라 성인학습자의 참여 동기를 더 고양할 때 가능함을 시사한다.

셋째, 중국 대학평생교육원생의 배경특성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의사결정의 관계에서 참여 동기의 매개효과 차이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높고, 하위층 생활자보다 중간층 생활자가 높고, 3학년보다 2학년 학습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서비스 만족도의 매개효과 차이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높고, 중간층 생활자보다 하위층 생활자가 높고, 2학년보다는 3학년 학습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적 효능감과 진로의사결정 관계에서 참여 동기와 교육서비스 만족도의 매개효과가 참여 동기에 있어서는 남자보다 여자, 중간층 생활자, 저학년학습자가 높은 반면, 교육서비스 만족도에 있어서는 남자보다 여자, 하위층 생활자, 고학년학습자가 높게 매개함을 의미한다. 이는 중국 대학평생교육원생의 진로의사결정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참여 동기 차원에서는 남자 학습자, 하위층 생활자, 고학년 학습

자의 참여 동기가 고양될 필요가 있고, 교육서비스 만족 차원에서는 남자보다 여자, 중간층 생활자, 고학년 학습자를 위한 대학의 지원 및 조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론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과 한국의 진로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성인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매우 적다. 따라서 중국과 한국의 평생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성인학습자들의 진로 의사결정 특히, 대학 학위과정 평생교육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진로 의사결정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중국 대학평생교육원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진로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진로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매우 필요하다. 성인학습자들이 학습에 대한 동기와 흥미를 갖게 하는 바람직한 교육과정이 필요하고, 그들이 자율적으로 학업에 임할 수 있는 학습프로그램과 전략적인 방안들이 요청된다.

셋째, 중국 대학성인학습자들의 진로 결정에서 참여 동기의 유형에 따라 취업준비가 촉진된다는 것이 연구결과로 도출되었으므로 진로교육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교육에 참여한 취업준비생들 대상으로 수업참여도와 교육만족도에 대한 극대화를 위한 수준별 조정하고 프로그램과 계획이 필요하다.

넷째, 교육서비스 만족도는 진로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 의사결정의 관계에서 매개변수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대학평생교육원생의 진로 의사결정의 향상은 대학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체계적인 지원에 달려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중국 대학평생교육원은 전략적인 마케팅 실행과 파트너십을 통하여 성인학습자의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참고문헌

- 가연희(2008). 기업교육 참가자의 성취동기, 참여동기, 자기효능감, 자기조절학습수행력이 교육훈련의 만족도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민정(2015).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의 구조관계 규명.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인탁(2013). 대학평생교육프로그램 유형에 따른 성인학습자의 참여 동기가 만족도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교육종합연구**, 11(3), 139-164.
- 권인탁(2014). 대학 성인학습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프로그램 만족도와의 관계: 프로그램 마케팅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20(3), 57-83.
- 김대명(2013). 중년기 여성의 평생교육 참여 동기, 자기주도학습, 교육서비스 질 및 프로그램 만족도의 구조적 관계.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리원(2012). 민주시민교육 학습자의 참여 동기와 교육만족도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자(2019). 커피교육 수강생의 참여 동기가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정경·창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희, 이결재(2018). 관광전공 대학생의 교육서비스품질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식산업학회지**, 14(4), 47-59.
- 김성희(2010). 일반계 고등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스트레스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소영(2020). 직업교육에 참여한 경력단절여성의 학습참여 동기에 따른 진로적응성에 관한 연구. 백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희(2018). 조리교육 서비스품질이 진로선택 및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위탁학생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아영, 박인영(2001).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교육학연구**, 39(1), 95-123.
- 김영성(2019). 장애인체육 자원봉사활동의 참여동기와 자아효능감 및 진로성숙도 간의 구조적 관계 연구. **한국특수체육학회지**, 27(3), 113-126.
- 김은정, 서동희, 기은정(2020). 스마트 러닝을 활용한 간호교육에서 과제가치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습참여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8(7), 229-236.

- 김종숙(2010). 기혼여성의 직업교육 참여가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직업교육 수강생을 중심으로.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아(2008). 무용 전공학생의 교육과정 만족도와 진로결정과의 관계.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민(2020). 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수준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인평, 강동원, 이재근(2019). 대학생의 교육서비스품질이 전공만족, 전공몰입,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Tourism Research**, 44(3), 81-106.
- 박금선(2001). 고등학생의 자기효능감과 내외통제성이 진로미결정문제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민경(2019). 대학 태권도 시범단원의 참여동기가 심리적행복감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가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용균(2007). 체육계열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 수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현(2020). 태권도 시범전공 대학생의 참여 동기와 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수준의 관계. 신한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현희, 김순이(2016).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0(6), 369-378.
- 박혜정(2010). 평생교육기관에서 성인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 학습동기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교육서비스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주영, 권인탁, 임영희(2014). 대학 성인학습자의 참여 동기, 학업적 효능감 및 학업적 행복감의 구조관계에서 교육서비스 질 인식의 매개효과. **평생학습사회**, 10(4), 165-192.
- 양동희, 정해옥(2020). 외식전공 대학생들의 교육서비스 품질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조리학회지**, 26(6), 77-86.
- 오은주(2016). 대학 신입생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진로장벽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4), 551-574.
- 왕효경(2018). 중국대학생의 성인애착, 자기분화, 사회적지지, 진로의사결정의 특징 및 관계.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연숙(2006). 교육서비스 품질이 학생만족과 진로탐색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길(2008).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고교생과 대학생 및 성별간의 차이. **진로교육연구**, 21(3), 217-230.
- 이선아(2019).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생 요인 및 대학 요인의 다층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영아(2012). 성인학습자의 학습참여 동기유형이 경험학습양식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창, 유계식(1996). 성취동기, 성역할정체감, 진로결정유형간의 관련분석과 이들 변인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教育研究論叢**, 1(13), 111-145.
- 이한나, 안선주, 최정일(2019). 교육서비스품질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비스경영학회지**, 20(1), 155-175.
- 이현미, 정제영(2017).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청소년학연구**, 24(2), 117-139.
- 임태욱(2000). 中.高等學生의 自我概念과 進路成熟 및 進路意思決定有形의 關係.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광원(2012). 진로의사결정 타협유형에 따른 전공만족도, 진로성숙도, 대학생활적응도의 차이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경문(2005).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6(1), 185-196.
- 전경애(2005).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진로의사결정유형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진준혁(2010).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진로태도성숙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글로벌인적자원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영준(2016). 체육계열 대학생이 지각한 교육서비스품질과 전공만족 및 진로결정 효능감의 관계. **한국체육과학회지**, 25(1), 1023-1034
- 최운실(1986). 成人教育類型에 따른 教育參與 特性分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아름(2012). 2년제 항공관광서비스관련학과 대학생의 진로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항공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 5, 151-162.
- 함진희(2018).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의 자원봉사 참여 동기가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자원봉사 만족도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신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애순(2013). 초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교생활적응이 학교행복감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陳勇(2012). 大學生就業能力及其開發路徑研究. 浙江大學博士學位論文.
- 杜友堅(2014). 近年來我國高校成人教育研究熱點知識圖譜及發展趨勢研究——基于成人教育研究文獻的共詞分析. **中國高教研究**, (4), 78-82.
- 杜睿(2006). 大學生職業決策困難的研究. 華中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 段姍姍, 徐春婷(2014). 社會支持與大學生職業生涯探索的關係. **阜陽職業技術學院學報**, 25(3), 20-2.
- 范晶晶(2010). 碩士研究生職業決策困難與職業自我效能感關係. 哈爾濱工程大學碩士學位論文.
- 方翰青, 譚明(2014). 高職生職業決策自我效能感與社會支持的關係研究. **教育學術月刊**, (2), 55-5.
- 郭欣(2017). 中國當代大學生就業能力培養研究. 吉林大學博士學位論文.
- 黃海霞(2014). 成人高等教育的現狀與改革對策研究——以上海市區辦成人高校為例. 西南大學碩士學位論文.
- 王霖(2005). 關於我國普通高校成人教育改革的思考. 湖南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 溫正胞(2017). 高校畢業生就業決策困難與職業指導教育的開展. **教育發展研究**, (5), 18-24.
- 謝寶國, 夏勉(2013). 職業決策困難研究述評. **心理科學進展**, 21(6), 1112-1124.
- 熊婕(2014). 異質性勞動力、就業匹配與收入差距——基于勞動力異質性和市場異質性的匹配. 重慶大學博士學位論文.
- 許競, 于明瀟, 郭巍(2019). 我國成人高等學歷教育七十年回溯與反思. **終身教育研究**, (4), 28-37.
- 揚光萍, 謝寶國(2017). 大學生職業決策困難：水平、人口學特征及傳記性影響因素——一項探索性研究. **中國人力資源開發**, 5(10), 37-44.
- 張平, 劉暢, 倪士光(2014). 大學生的職業決策困難與社會支持、幸福感. **中國心理衛生雜誌**, 28(10), 778-781.
- 張艷超(2019). 生態視角下我國高等學歷繼續教育可持續發展研究. 華東師範大學博士學位論文.
- 趙春明, 李宏兵(2014). 出口開放, 高等教育擴展與學歷工資差距. **世界經濟**, (5), 3-27.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Englewood Cliffs, NJ, 23-28.
- Betz, N. E., & Hackett, G. (1986).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understanding career choice behavior.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4(3), 279-289.
- Browne, M. W., & Cudeck, R. (1992).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ociological*

- methods & research*, 21(2), 230-258.
- Crites, J. O. (1961). A model for the measurement of vocational maturi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8(3), 255-259.
- Gati, I., Krausz, M., & O'sipow, S. H.(1996). A taxonomy of difficulties in care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4), 510-526.
-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Anderson, R. E., & Tatham, R. L. (1998). Multivariate data analysis. *Upper Saddle River*, 5(3), 207-219.
- Harren, V. A. (1979). A model of career decision making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4(2), 119-133.
- Janis, I. L., & Mann, L. (1977). *Decision making: A psychological analysis of conflict, choice, and commitment*. The Free Press.
- Steiger, J. H., & Lind, J. C. (1980). *Statistically based tests for the number of common factor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Psychometric Society*. Iowa City, IA.
- Thomas, D. M., Love, K. M., Roan-Belle, C., Tyler, K. M., Brown, C. L., & Garriott, P. O. (2009). Self-efficacy, motivation, and academic adjustment among African American women attending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The Journal of Negro Education*, 159-171.
- Vallerand, R. J., Pelletier, L. G., Blais, M. R., Brière, N. M., Senécal, C., & Vallières, E. F. (1992). The Academic Motivation Scale: A measure of intrinsic, extrinsic, and amotivation in education.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52(4), 1003-1017.
- Walker, C. O., Greene, B. A., & Mansell, R. A. (2006). Identification with academics, intrinsic/extrinsic motivation, and self-efficacy as predictors of cognitive engagement.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16(1), 1-12.
- Wanberg, C. R., & Muchinsky, P. M. (1992). A typology of career decision status: Validity extension of the vocational decision status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1), 71-80.
- You, J. W., & Song, Y. H. (2013). Probing the interaction effects of task value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learning engagement and persistence in an e-learning

cours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3(3), 91-112.

- 논문 접수 2021. 01. 15. / 수정본 접수 02. 23. / 게재 승인 03. 02.
- 왕 진: 전북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주요관심은 평생학습, 진로교육 등임.
- 권인탁: 전북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Univ. of Georgia,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Univ. of Oklahoma에서 Post Doctor 및 연구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한국평생교육학회 회장 및 전북대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임, 주요관심은 고등평생교육, 지역평생학습 등임.

*Abstract*

**Structural Relationship of Adult Learners' Career  
Decision-Making Factors in Credit Accreditation Courses  
at Chinese University Continuing Education Centers**

Wang Jin(Qufu Normal University)

Kwon, In Tak(Jeonbuk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of academic self-efficacy, participation motivation, educational service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making of adult learners in credit accreditation courses at Chinese university continuing education centers. The specific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First, what is the structural relationship of the academic self-efficacy, participation motivation, educational service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 making of adult learners? Second, how are participation motivation and educational service satisfaction mediat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making of adult learners? Third, what are the differences in background characteristics (gender, academic background, level of living and grade) of participants in lifelong education in Chinese universities regarding these mediated effects? The statistical package of SPSS 25.0 and AMOS 24.0 were used to test the data collected from 516 participants in credit accreditation courses at Chinese university continuing education centers to analyze differences by individual background characteristics, and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ables. The specific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academic self-efficac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participation motivation, educational service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 making. In addition, the participation motivation and educational service satisfac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career decision-making.

Second, in addition to the results that participation motivation and educational service satisfaction have significant mediating effec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making, the mediated effect was confirmed to have

greater participation motivation than educational service satisfaction.

Third, in the relationship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making, the mediated effects of participation motivation and educational service satisfaction have significant mediating effects on male and female groups, junior college graduates of academic background, middle and lower groups of living standards, second and third grade groups of grade.

\* Key words: academic self-efficacy, participative motivation, educational services satisfaction, career decision making